

서비스 Launching 및 사업비전 설명회

양계수의, IT와의 조우

네오바이오(주), 『닥터-M』 출시

>>> [취재 _ 이미지]

휴 대폰을 이용한 양계전문 수의 서비스가 탄생하여, 양계업계는 물론 축산업계 전반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축산업계에서도 유비쿼터스 시대가 왔음을 실감케 한 이번 쾌거를 이룩한 주인공은 네오바이오(주)이다. IT강국 한국의 위상은 높아지고 있지만, 그동안 농수축산업계와 IT와의 접목은 단순한 수준에 그치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런 중에 네오바이오(주)가 SK텔레콤주식회사와 (주)바리오와 손을 잡고 모바일 솔루션 『닥터-M』을 출시한 것이다.

네오바이오(주)의 유종철 대표이사(양계수의사)는 지난 4월 13일 서울 강남의 팔레스호텔에서 가진 “닥터-M 서비스 Launching 및 사업비전 설명회”에서 “그동안의 원격진료 시스템이란 것이 전국의 각 농장에 기간 전산망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 살아있는 시스템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서 “모바일을 이용한 양계수의 서비스는 이러한 어려움을 개선한 강력한 질병진단, 사양관리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유종철 대표이사는 ‘선(線)의 의미’를 주제로 한 인사말을 통해 “우리사회의 복잡한 선은 복잡한 인간관계의 연결과 구속을 의미한다”며, “기술이 발달할수록 선(線)은 사라지기 마련”이라고 말하고, 기술의 발달은 선의 긍정적인 의미만 남기고, 부정적 의미는 제거할 것이라고 했다. 그런 의미에서 무선통신(휴대폰)을 활용한 양계수의 서비스, 닥터-M의 출시는 양축가들을 보다 편하고, 행복하게 하는 해결책(솔루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네오바이오(주)가 출시한 『닭터-M』은 각 양축가가 자신의 핸드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게 질병에 대한 전문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진료내용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는 물론, 공간의 제약없이 농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양계장은 전국적으로 넓게 분포되어 있고, 양계수의사의 수는 한정되어 있는 현실에서 핸드폰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실시간으로 받고, 아픈 동물에 대한 즉각적인 응급처치 및 방역, 위생관리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는 발상은 획기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 특히 입식 날짜와 마리수를 입력하여, 매일 농장관리사항 점검과 질병예방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점도 눈길을 끈다.

『닭터-M』의 메인 메뉴를 살펴보면, 크게 여섯가지로 나눌 수 있다. 최고농장만들기, 문제점해결방안, 뉴스센터, 원격진료서비스, 육계입식관리, 자료서비스 등이 그것이다. 최고농장만들기에서는 올바른 입추와 월령과 체중, 급수와 급이기, 생산지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문제점해결방안에는 주령병 예상문제, 분변과 질병상태, 대표적 문제점, 온도와 습도관계, 호흡수와 폐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뉴스센터에서는 각종 시세정보 및 질병동향을 전해준다. 원격진료서비스에서는 모두 양계의 주요질병 7~8가지를 중심으로 안면부, 가슴부분, 장기부분, 기타 소견 등으로 나누어 진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육계입식관리 및 자료서비스에서도 다양한 자료와 컨설팅이 가능하도록 디자인하였다.

이러한 콘텐츠는 매주 업그레이드 되는 것은 물론 나아가서는 원산지식별(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도 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유 대표이사의 설명이다.

네오바이오(주)는 이 시스템을 현재는 양계에 한정하고 있지만 향후 돼지는 물론 전 산업동물 영역으로 확대할 것이며, 반려동물(애완동물)에 대한 서비스도 실시할 계획이다. 네오바이오(주)는 이번 『닭터-M』출시를 기점으로 향후 애니멀헬스케어의 선두기업, 그린테크날러지 기업으로 우뚝 설 것이라고 다짐하고, 2007~2008년에는 코스닥 상장까지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솔루션이 곧바로 현장에 적용될 것인지, 그리고 기대만큼의 활약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날 제품발표 및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한 양계종사자는 “탁월한 아이템임에는 분명하다”고 말하고, “다만 복잡한 연결과정을 반복해야 하거나, 눈으로 보지 않고 진단하는 것이 가져올 수 있는 오진에 대해서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전반적으로는 이 솔루션이 축산업계의 새로운 바람이 될 것이라는 것에 동의하는 분위기였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대한양계협회 최준구 회장을 비롯 계육협회장, 청오컴넷 전 부사장, 흥성사료 대표이사, 조인주식회사 회장, 고려비엔피 대표이사, 우진B&G 대표이사, (주)바리오 대표이사 등이 참석하여, 축산업과 IT와의 만남에 대한 업계의 관심을 보여주었다. ㉔